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주부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200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이 영 환, 이 수 재[†]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주거학과

Analysis of The Time Use of Working Women and Housewives Having Preschool Children

- Centering on the Data of The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4-

Yeong-Hwan Lee · Soo-Jae Lee[†]

Dept. Child Studies & Housing Environm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is attempted to help double-income families use resources efficiently and rationally by analyzing The Time Use each of working women and housewives having preschool children based on the data of The Time Use survey carried out in 2004 and promote understandings on their quality of life, lifestyle and family welfare.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the actual The Time Use of double-income families having preschool childre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The Time Use between double-income families and single-income families in 1999 and 2004,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usbands' participation time in family management or family care between 1999 and 2004.

Second,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The Time Use between double-income families and single-income familie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non-presence of preschool children, families having preschool children spent much more hours in family care than families without preschool children.

Third,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the weekend schedule between double-income families and single-income families, it is found that working women work much more than housewives not only on weekdays but also on weekends and in particular, it is found that working women having preschool children work 2 hours longer than housewives.

Key words: The Time Use, preschool children, working women, housewives

[†] Corresponding author, Tel : 011-677-6009, E-mail : sjmano@hanmail.net

I. 서론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노동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최근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2005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 50.1%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취업 주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여성들은 직장인인 동시에 여전히 '주부'로 직장 일과 더불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과제를 안고 생활하고 있다. 이는 결혼을 한 후에도 꾸준히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30대 초반 연령층에서 혼인에 따른 출산과 육아 문제로 말미암아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소 낮아지다가 자녀들이 취학을 한 40대에서는 여성들의 노동 시장 진입이 활발해진 후 50대 중후반 정년진입과 동시에 다시 감소하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 모양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에게는 개인의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족 영역에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여전히 여성들의 일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에게 일이 갖는 의미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과 가족생활을 둘러싼 기존의 사회적 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성 개인에게 일과 가족생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여성에게 있어 경력단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해 맞벌이 가정의 증가, 성역할의 경계 붕괴 등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시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의 의식의 변화로 인해 가사와 양육에 있어서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조옥라, 신경아 2001). 부인의 취업이 양육이나 가사노동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김미하 1990)가 있다. 또 전업 주부의 남편과 비교했을 때 취업주부의 남편에게 있어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기영 등 2001). 이는 맞벌이 부부간에 가사노동 분담과 참여가 상당히 불균등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불균등이 맞벌이 가구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채로, 이기영 2004). Hochschild(1989)는 여성은 남성보다 직장일, 가사노동, 자녀 돌보기를 하느라 주당 15시간 정도 더 일하고 더 적은 여가 시간을 가진다고 했다. 또 손문금(2003)은 기혼 취업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기존의 책임에 직장

일을 더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직장일과 가사노동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여가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러한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과 자녀 돌보기 분담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활시간 조사이다. 생활시간은 1990년대 이래 많은 나라에서 국가간 국민생활을 비교하는 중요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이연숙 등 2002).

개인이나 가족의 시간 배분 방식은 이들의 생활양식과 생활 습성을 보여주며 나아가서는 한나라 국민의 생활양식이나 생활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간 및 시간 배분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자료수집의 어려움 및 이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실증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에 이르러야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전국적 규모의 시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한일 양국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을 분석한 연구(조희금 등 2000), 주말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문숙재, 윤소영 2003), 취업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성별 분리에 관한 연구(박주희, 이숙현 1995), 취업부부의 시간갈등에 관련된 연구(한경미 1991) 등이 있다. 미취학 유아를 둔 주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미취학 유아를 둔 맞벌이 부모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시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가족들의 생활의 질이나 생활양식, 가족 복지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 미취학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의 실제 생활시간 이중에서 특히 가정관리와 가족 돌보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양육을 이해하고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 지원 방안을 제공하고 나아가 보육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시간의 개념

사람들이 일정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용어로 생활시간(Time use), 시간 예산(time budget), 시간 배분(time allocation)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각 용어가 의미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나라 또는 학문별을 사용되는 용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

서는 'time-use' 또는 'time allocation'이라고 하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생활시간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김영숙, 김지현 2000).

생활시간이란 '1일의 생활내용을 시간으로 나눈 것' 또는 '생명의 유지 계승을 위해 어떤 형태의 기능이 어느 정도의 시간에 영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생활'이란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자원의 이용 방법과 관련된 시간 관리는 한 개인이나 가족원의 목표달성, 다른 자원의 사용 및 개발, 그리고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감을 좌우한다. 즉,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생활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 또는 가족이 가장 원하는 생활 형태나 생활의 질을 획득하게 된다. 특히 사회의 산업화로 인해 생활양식이 다양해지고 선택의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시간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생활시간의 분류

생활시간의 분류는 연구 목적과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생활 내용을 96개의 활동으로 나누고 이것을 37개의 범주로 축소하고 다시 직업 노동에 관련된 일, 가사 노동, 기타 가사외무 - 자녀양육, 개인적인 필요시간, 직업일과 관련 없는 교통시간, 공부와 조직에 참여시간, 대중매체 이용시간, 여가시간의 9개 집단으로 나눠 분석한 Szalai(1972), 노동, 가사 노동, 자녀 양육, 개인적인 필요, 교통시간의 영역을 의무적인 활동시간, 조직 활동과 교육, 대중매체 이용, 사회적 오락적인 시간을 자유 시간으로 나누는 Robinson(1997)의 연구들이 생활 내용을 세분하여 조사한 생활시간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간 연구에서 가사 노동에는 자녀 양육과 기타 가사 의무나 책임 등이 포함되고, 여가에는 대중매체의 이용이나 조직 참여 활동, 그리고 기타 사회 문화적인 활동들 까지 포함하고 있다(한경미, 황덕순 1990).

3.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생활시간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생활시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Schor(1991)는 맞벌이 가구의 주부들은 주당 40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고, 25시간에서 45시간 정도는 가사일을 하는데 보낸다고 하였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둔 취업 여성들은 직장 생활에 가사와 육아가 덧붙여지면서 남편보다 주당 15시간, 1년에 한달 더 일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맞벌이 가구의 남편들은 하는 경우 비맞벌이 가구 남편보다 가사 노동 시간이 길어 부인의 취업이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를 촉진시키며(이기영 등 1995) 핵가족 내에서 부인의 취업이 양육이나 가사노동에 아버지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김미하 1990)고 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남편은 비맞벌이 가구의 남편보다 가사노동에 40분 이상 많이 참여하고 있어 부인의 이중역할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조미환 1996), 여전히 남성은 가사노동 참여에 전통적이거나 소극적이지만 자발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성도 13%에 이르러, 남성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조성은 1998). 즉 이들 연구 결과들은 모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도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4년 9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국민 생활시간 조사결과'와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1999년 1차 조사에 이어 5년 만에 수행된 것으로, 2004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에 걸쳐 10세 이상 가구원(12,750가구, 32,191명)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을 10분 단위로 48시간을 스스로 기록하게 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 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일기 방법에 의해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개인관련 항목과 가구관련 항목은 면접조사로, 시간일지는 응답자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조사되었다. 시간일기법은 시간 정보를 모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응답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직접 24시간 동안 행한 활동을 기입하는 방법이다.

9개의 대분류, 50개의 중분류, 137개의 소분류로 분류된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시간 배분은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생활시간 중에서도 가사노동과 관련있는 가정관리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항목이 포함된 가족 돌보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행동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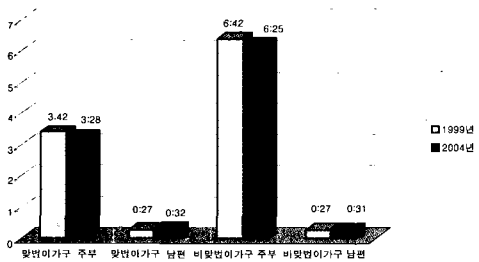
〈표 1〉 행동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내용
가정관리	음식준비	식사준비, 설거지, 식후정리,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의류관리	세탁 및 세탁물 널기, 옷정리(세탁물 걷기, 옷장정리 등), 다림질, 바느질, 의류손질, 의류수선, 세탁 서비스 받기, 재봉, 뜨개질
	청소 및 정리	방, 물품정리, 집안청소(쓸기, 닦기), 그 외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재도구, 집 손질 및 관련 서비스 받기, 세차, 차량관리 및 관련 서비스 받기, 그 외 집 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시장보기(식료품, 알용품, 세제, 휴지 등), 쇼핑하기(의복, 신발, 장식품 등), 내구재 구매 관련 행동, 무점포 쇼핑(인터넷, TV 홈쇼핑 등)
	가정경영	가계부 정리, 가정계획,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기타가사일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 아이보살피기	신체적 돌보기(씻기기, 먹이기, 재우기 등),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미취학 아이 간호,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IV.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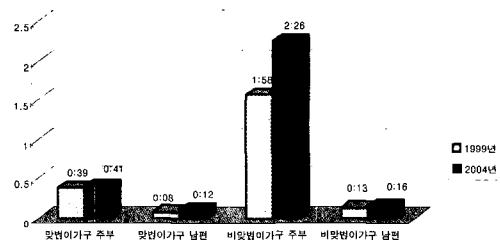
1. 1999년 생활시간과 2004년 생활시간 비교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에 사용된 시간을 1999년 조사된 생활시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가정관리 시간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 조사를 비교해 볼 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주부는 가정관리 시간이 14초 감소한 반면 남편은 5초가 증가했다.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주부는 가정관리 시간이 7초 감소하고 남편은 4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에게 있어서 가정관리는 여성의 취업과는 무관하게 남편들의 가정관리 참여 시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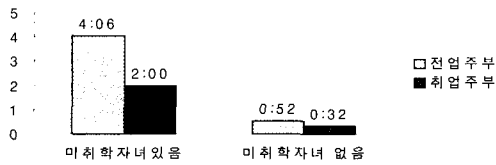


〈그림 2〉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가족보살피기 시간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 조사를 비교해 볼 때 맞벌이 가구 주부의 경우 가족보살피기는 5초가 증가한 것으로, 남편은 4초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족보살피기는 주부는 28초, 남편은 3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보살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취업과는 무관하게 남편들의 참여 시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미취학 자녀 여무에 따른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 생활시간

생활시간 조사에서 나타난 가족 보살피기 시간을 미취학 자녀의 유무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미취학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의 가족보살피기 시간

취업 주부의 경우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 보살피기 시간이 2시간 사용된 것으로 측정되었고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32분이 소요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전업 주부의 경우에는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4시간 6분, 미취학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5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가족 보살피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미취학 자녀의 유무,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가족 보살피기는 미취학 아동 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등 5개 중 분류로 나뉘 볼 수 있다.

〈표 2〉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난 가족보살피기 시간

	취업주부	전업주부
미취학 아동 보살피기	16분	57분
초중고생 보살피기	11분	15분
배우자 보살피기	2분	5분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1분	2분
그 외 가족보살피기	2분	4분

생활시간 조사에서 취업주부의 경우 미취학 자녀 보살피기에서 16분, 전업주부의 경우 57분으로 41분 적게 나타나고 있다. 미취학 자녀를 둔 주부들은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미취학 자녀 보살피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 보살피기는 다시 신체적 돌보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간호, 기타 보살피기 등 4개 문항으로 세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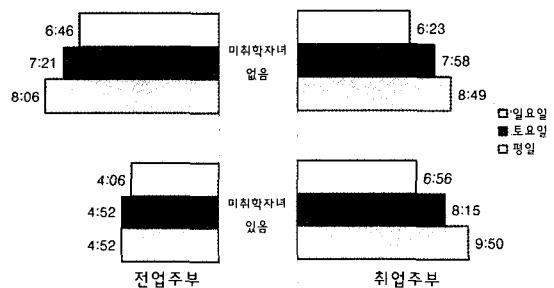
〈표 3〉 미취학 아동 보살피기

	취업 주부	전업 주부
신체적 돌보기	9분	30분
책읽어주기, 놀아주기	5분	22분
간호	0분	1분
기타 보살피기	1분	3분
전체	16분	57분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문항은 신체적 돌보기, 책 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미취학 아이 간호,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등 4개 문항으로 세분되어 있다.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은 취업주부의 경우 신체적 돌보기가 19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그 다음으로 책 읽어주기, 놀아 주기가 14분, 기타 보살피기 2분, 간호 1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미취학 아동의 돌봄을 표현하기에는 분류 문항이 지나치게 단순해서 미취학 아동의 돌봄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3.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주말 생활시간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주말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미취학 자녀 유무에 따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총 일한 시간

취업주부의 경우 평일에는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일로 전업주부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주부의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평일에는 2시간 50분, 주말에는 3시간 23분, 4시간 58분 더 많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의 경우 주말에는 직장의 일이 없어도 가정에서 해결해야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가족들의 생활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 2004년도 통계청 생활시간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과 2004년도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생활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1999년에 비해 가정관리나 가족 보살피기에서 남편의 참여 시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이 20 ~ 50%의 가사를 분담하고 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편이 가족의 일도 분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의식한다는 연구(함인희, 한정자 2001)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남편들이 의식적으로는 가사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가사노동이나 자녀 돌보는 일은 여성의 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미취학 자녀 여부에 따른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생활시간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가족 보살피기 시간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아동의 어머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 내 자녀 양육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장혜경 등 2003). 취업주부라 하더라도 아동의 어머니가 대부분 주양육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과 유아 양육 부담을 함께 지고 있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강도는 강하고 아이들의 영양, 안전, 위생, 요구 등에 지속적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으로 부모의 손길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 취업 주부건 비취업주부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말에 따른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취업 주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전업주부보다는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주부들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은 전업주부보다 평일에는 약 4-5시간 정도가 적지만 휴일은 전업주부와 비슷하다는 연구(김외숙, 이기영 2002)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Hochschild(1989), 손문금(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취업 주부들이 느끼는 이들

어려움들은 결국은 남편과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런 결과들은 여성가족부의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에서 취업모가 느끼는 자녀양육 어려움은 과중한 양육 및 가사부담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 이 결과는 전업주부의 경우 일은 하고 싶으나 자녀양육과 가사전념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들로 취업 주부들의 고충을 대변해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고 그 일들은 모두 여성이 담당한다는 의식이 확고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서도 주부는 이 두 가지 역할과 더불어 직장일까지 수행해야만 한다. 남성들의 가사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편들에게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참여가 당연한 그들의 일상적인 일이 되지 않는 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생활은 여전히 피곤한 일상이 계속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의 저출산 문제는 계속적으로 야기될 것이고 그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국가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육아데이, 육아 휴직 등의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에게 활용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남편들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자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시간 조사에서의 가족돌보기 특히 신체적 돌보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보살피기 등 미취학 자녀 돌보기의 항목들은 실질적인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 양육 항목들을 유아들이 생활 패턴을 고려해 좀 더 세분화시킨다면 남성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VI. 참고문헌

1. 김미하(1990). 노동자 가족 내 성별 분업에 대한 사례 연구: 남성의 양육 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영숙, 김지현(2000). 대학생의 생활시간 구조분석. *논문집* 21(2): 389-404
3. 문숙재, 윤소영(200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13-220
4. 박민지(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 논문집* 21: 3-31
 5. 손문금(2003). 맞벌이 주부의 이중부담과 여가시간의 성격. *통계연구* 8(2): 23-58
 6. 여성가족부(2003). 전국 가족조사 및 한국 가족 보고서. pp. 104-109
 7. 여성가족부(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실태 조사보고」 pp 86-101
 8. 이기영, 이연숙, 조희금, 김외숙(1995).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p 44, 서울대학교 출판부
 9. 이연숙, 이기영, 김외숙, 조희금, 주인숙(2002). 한미 양국 간 가족의 시간 사용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39-156
 10. 신경아, 조옥라 (2001). 21세기 가족과 모성의 변화. *여성연구논총* 1: 111-132
 11.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12. 조성은(1998).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3. 채로, 이기영(200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14.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
 15.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 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한경미, 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17. 함인희, 한정자 (2001). 여성의 가족과 일의 조화에 대한 국민 체감의식 연구. *여성학논집* 18(1): 195-227
 18. Arlie R. Hochschild, Anme Machung(1989). *Second Shift*. pp 89-96, Viking
 19. Robinson, John P., Godbey, Geoffrey(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 Juliet B. Schor(1991).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Basic Books
 21. Szalai, A.(1972). *The use of time-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 in twelve countries*, pp 97-119, Mouton